

# 아이즈원 · 엑스원 해체 논의? 엠넷 “특별히 정해진 것 없어”

### “수사 결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기존 입장 고수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를 통해 탄생한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해체설이 불거진 가운데, 엠넷 측이 해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엠넷 측 관계자는 11일 뉴스1에

“아이즈원의 새 앨범 ‘블룸아이즈’ 활동이 잠정 연기된 것은 맞지만 해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아이즈원과 엑스원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각 그룹 일부 멤버의 소속사들이 모여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것. 그러나 엠넷 측은 해체와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연출한 안보 PD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의 투표수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에 ‘프로듀스 48’을 통해 탄생한 아이즈원, ‘프로듀스X101’을 통해 결성된 엑스원이 직격타를 맞았다.

관련 프로그램이 ‘조작 논란’에 휩싸인 뒤, 아이즈원은 정규 1집 ‘블룸아이즈’ 활동을 잠정 연기했으며, 엑스원 역시 해외 스케줄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지상과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해체를 요구하는 이들도 등장하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뉴스1

## 조진웅 “작품 기준은 사람..난 충무로가성비 갑”

### 영화 ‘블랙머니’ 관련 인터뷰...“전학의 공포’ 있어”

배우 조진웅이 자신을 “충무로가성비 갑”이라고 표현해 웃음을 줬다.

조진웅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영화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관련 인터뷰에서 작품 선택의 기준을 ‘사람’으로 꼽으며 “사람들이 좋으면 같이 하는 거다. ‘이 캐릭터는 이 알반이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드려 보시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내가 쥐보라고 했는데 안 하면 이리(나에게)로 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쪽이) 비싸게 불렀겠죠, 나는 싼데. 나는 충무로가성비 갑이다.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한다. ‘대장 김창수’도 3년을 다른 사람 하라고 누구한테 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했다더라. 진짜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제작자가 친구라서 했다. 그 친구는 내 개런티만 까더라”라고 해 웃음을 줬다.

그가 이처럼 사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전학의 공포’ 때문이다. 조진웅은 “전학의 공포를 아시나. 부산에서 살다 서울에 왔는데, 서로가다 아는 사람인데 나만 모른다. 이렇게 친해 지는게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작업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프리를 오래 했다. 나는 조연으로 가거나 하면 처음 만나는 분이다. 친숙해질 때까지 끝난다”며 “그래서 연극도 부산에서 연극을 해도 연극 동지들과 하고 싶다. 지금은 서울에 많은 배우들, 협연해본 배우들이 많아서 불편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블랙머니’에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서울 지검 ‘막프로’ 검사 양민혁 역을 맡았다.

한편 ‘블랙머니’는 검찰 내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적 검사로 이름을 날리는 양민혁이 자신이 조사를 담당 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벼랑 끝에 몰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내막을 파헤치다 “대한은행 횡령 매각 사건” 뒤의 금융 비리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부러진 화살’(2012) ‘남영동 1985’(2012) 정지영 감독이 7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13일 개봉한다.



## 김빈우, ‘아내의 맛’ 합류→‘애들맘’ 리얼 육아 라이프 공개

### 2015년 2살 연하 전용진과 결혼...슬하에 딸·아들 하나

김빈우가 ‘아내의 맛’에 전격 합류, 남매를 키우는 ‘애들맘’의 리얼 육아라이프를 결혼 4년 만에 처음 공개한다.

12일 오후 방송되는 방송될 TV CHOSUN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에는 배우 김빈우가 처음 등장한다.

김빈우는 지난 2015년 2살 연하인 전용진과 결혼,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현재 전업 주부를 키우며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빈우는

‘아내의 맛’에서 2살 연하 남편, 두 남매와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애들맘’의 일상을 선보인다.

특히 활발하고 잘생긴 김빈우의 2살 연하 남편 전용진이 ‘아내의 맛’을 통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다. 배우 짝치는 전용진의 예사롭지 않은 외모와 포스는 스튜디오를 술렁거리게 만들었다. 이어 김빈우와 전용진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동거를 시작, 곧바로 결혼 이르게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처음으로 밝혀져 현장을 들썩였다. 제작진은 “슈퍼모델로 데뷔, 배



우로서 맹활약했던 김빈우가 행복한 결혼 라이프를 솔직담백하게 선보인다”며 “연하 남편과 결혼에 성공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두 남매를 키우며 현실 육아 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슈퍼맘’ 김빈우의 유쾌하고 진솔한 일상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 이상민 “은행 압류 해제...수입도 플러스 돼”

###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출연해 밝혀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모든 은행에서 압류가 풀리고 수입이 올해부터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11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 출연했다. 이에 김영철은 지난해 7월 이상민이 ‘김영철의 파워FM’에 출연해 “올해까지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이제 (수입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김영철은 “그럼 올해부터는 플

러스가 된 것이냐”라고 질문했고, 이상민은 “그렇다. 플러스가 됐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영철은 JTBC ‘아는형님’에서 알려졌던 이상민의 은행 압류가 끝났다는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에게 “그럼 새 통장을 만들었냐”고 질문했고, 이상민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 원래 거래하던 은행 통장을 그냥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청취자는 이런 이상민에게 2020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

해 질문했고, 그는 “늘 몇 년째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늘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더 건방져지지도 않고, 급해지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처럼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이상민은 지난 2005년 약 69억8000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았지만 14년동안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해오며 빚을 상환해왔다.

이에 이상민은 지난 2일 방송된 ‘아는형님’에서 모든 은행에서 압류가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빚을 다 갚은 건 아니다”라며 “빚은 갚아야 하는데 모든 은행에서 압류 해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2관	신의 한 수:귀수편
3관	82년생 김지영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5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가장 보통의 연애
6관	닥터 슬립
7관	말레피센트2, 조커, 가장 보통의 연애
8관	신의 한 수:귀수편
9관	82년생 김지영, 날씨의 아이, 아담스 패밀리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1관	날씨의 아이,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닥터 슬립
2관	82년생 김지영,
3관	날씨의 아이, 신의 한 수-귀수편, 아담스 패밀리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5관	아담스 패밀리, 82년생 김지영, 닥터 슬립
6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